

가볍게 폴짝!

우리가
읽어낸 용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함께 읽은 부광초등학교 친구들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벼 가볍게 폴짝!

우리가
읽어낸 용기

발행일 | 2025년 12월

지은이 | 부광초등학교 학생 20명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제 작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ISBN | 979-11-94496-85-4(75800)

*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교육과정 연계
읽건쓰 책 읽는 학교」 부광초등학교의 마음을 모아 제작된 책입니다.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가볍게

폴짝!

우리가
읽어낸 용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 반 이름(정세은)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달사탕을 먹고 몸이 가벼워진 세영이를 보고
 나도 달사탕을 먹고 싶었다. 환우가 세영이를
 놀리는거를 보고, 왜 그러 놀리? 라고 생각
 했는데, 줄넘기를 못해서이다. 달사탕으 무슨
 맛일까? 궁금했다.

나도 현우오빠가 착한줄 알았는데, 착하지 않고
 환우에게 구박만 하는걸 보고, 두째 언니가
 대를 줬다. 윤기처럼 착하고 싶던 세영이는
 윤기 처럼 세영이도. 광해 줬다.

나도 귀공보다 줄넘기를 잘 하고 싶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 반 이름(박지현)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요즘에 줄넘기를 잘 하고 싶었는데 학교
에서 나의 마음을 알 아 주 게 잘 해서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줄넘기를 잘 하고 싶은 아이가 달사탕의
도움을 받아 줄넘기를 점점 잘 해 지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언제나 집에서 열심히 줄넘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만해 서 조금은 아슬 아슬
기억이 있다 주인공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줄넘기를 점점 잘 해 지는 느낌이
좋아 기 때문이다 내가 줄넘기를 잘 못 해서
힘들었던 모습이 기억나며 주인공은 사탕만 먹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탕을 먹지 않고 엄청
필수 기능이다 나는 점점 성장 해 나가
는 것 을 잘 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줄넘기
를 잘 못 하는 친구에게 꼭꼭 전 해 주고 싶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1 반 이름(오유라)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달사탕을 읽고 나서 왜 달사탕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이 "달에서 가볍다고 해서 내용을 잘랐었다" 작가는
 은 제목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송사탕도 능력
 이 추가되면 좋겠다. 만약 생기면 늘수있는거면 재미있을거
 같고 신기할것같다. 다른 사탕과 음료도 추가되면 좋겠다.
 이 책의 작가의 말이 나랑 비슷 하던 내가이동전 상금
 있다는것은 알았다. 그편도 있으면 좋겠다.

마치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 반 이름(이서원)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가볍게 폴짝 달사탕 글 박은경 그림 모차
 학교 운동회 때 줄넘기 대회 경기를 위해
 연습이 한창인 세영이네 반 세영이는 줄넘기
 못해 선수급 윤지현한테 배우고 실력이 나가지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원에 갔는데 거기
 있는 달사탕을 먹고 줄넘기 실력이 늘어났고
 달사탕이 녹아 자판기로 갔는데 거기에 찬우가
 있어서 찬우도 그 자판기에 의존했던걸
 알게되는 이야기다 나도 잘 못하는게 있는데
 저런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런 자판기
 에 너무 의존하면 중독이되어 안좋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 반 이름(초원희)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국어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작가와
11월 달에 만나다 해서 이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세명이와 찬우가 윤지처럼 줄넘기를 잘하고 싶어했다. 세명이
는 공원에서 줄넘기 연습을 하는데 우연히 달사탕을 얻
게 되었고, 찬우도 현우와 반한테 배운게 아니고 구박만
봤다가 우연히 달사탕을 얻은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윤지, 세명이, 찬우는 줄넘기 선수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달사탕은 하루에 한번밖에 못 먹는 걸 알게 되서
나눠가졌다. 그러다 새기고 양이를 구하는데 다 써서,
화장실 앞에서 세명이와 찬우가 고을하다가 결국 줄넘기를
뛰게 된 내용이었다. 세명이가 줄넘기를 못 해서 내가 가르쳐
주고 싶었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2반 이름(박태권)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선생님께서 국어시간에 작가와의 만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책을 읽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받아서 차례를 보니
왜 사라진 달사탕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왜 사라진 달사탕인지 알게 되었다.
세영이가 배설 때문에 힘들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고 양찬우가 계속 알뜰게 공부해서
짜증났다. 윤지가 세영이를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되었다. 현우가 착한 줄 알았는데
양찬우를 구박 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
양찬우가 조금 불쌍한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김세영이 주눅 기를 하다 넘어
졌을 때 손바닥이 정말 아파보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거라는 걸 느꼈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2 반 이름(김미소)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국어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볍게 폴짝 달사탕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달 사탕? 달사탕이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세영이는 줄넘기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영이는 체육 대회 줄넘기 반 대표가 되길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영이는 몸이 가벼워 지는 달사탕이라고 써있는 사탕을 먹고 몸이 가벼워 지는 걸 안 세영이는 대회때 먹으려고 하지만 사탕이 세탁기에 서 녹는 바람에 달사탕을 먹지 못합니다. 등교하는 길에 또 달사탕을 사게됩니다. 세영이는 마저 등교하다 달사탕을 먹고 고양이를 구하다 나머지 달사탕도 다 먹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체육대회 때는 세영이가 달사탕 없이도 신기록을 깨게되며 이렇게 자신감을 찾습니다. 전 이 장면이 인상깊었습니다. 저도 줄넘기를 처음했을 때 세영이처럼 이렇게 걸리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100개를 뛴날 정말 기뻐했습니다. 세영이도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이책을 다 읽고 보니 세영이는 저와 닮은 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어린적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뒷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답이 왔으면 좋겠네요.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2 반 이름(노승아)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선생님께서 국어시간에 「가볍게 폴짝 달사탕」이라는 책을
나눠 주셨는데 작가와의 만남을 한다고 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책 표지를 보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세영이가 공원에서 줄넘기 연습을 하다가 어느 한
자판기를 발견하여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몸이 가벼워 지는
달사탕이 나와 먹었는데 몸이 가벼워 지며 줄넘기를 잘하게
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 됩니다. 그러다 세영이는
체육대회에 대표로 뽑혀 체육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오는 길에 고양이를 구출하러 써버리게 되어
마법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로 체육대회에 나가 신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영이는 좌절할 수 있었지만, 용기로 체육대회에 나가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단 걸 깨달았습니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2반 이름(이혜빈)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작가의 만남이라고 「가볍게 폴짝 달사탕」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책표지를 봤을 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왜 달사탕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책내용도 재미있고 그림도 예뻐서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세영이가 꿀넉기를 못하다가 달사탕을 먹고 꿀넉기를 잘해지는 내용이 재미도 있었고, 친구가 세영이를 놀리는 장면도 있어서 책 내용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영이가 왜 꿀넉기를 잘하는지 궁금하고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2반 이름(석채원)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저는 국어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볍게폴짝 달사탕 책을 읽어보라 하셨기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목을 봤을 때 왜 제목이 가볍게 폴짝 달사탕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세영이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달사탕을 먹고 포기하지 않고 고양이를 구한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영이가 고양이를 구하면서 다리에 상처가 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고양이를 구했고 학교에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있게 줄넘기를 한것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세영이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잘못하는 것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싶습니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푹썩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3 반 이름(나유정)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가볍게 푹썩 달사탕」
안녕하세요 저는 4년 3반 나유정 입니다. 이 책을 읽게된
이유는 국어시간에 책이 배당(?) 와서 입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은 달사탕을 먹지 않고 나간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Happy 엔딩으로 끝났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달사탕을 먹지 않고 줄넘기를
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너무 감동적 이었다.
주인공이 달사탕을 먹고 고양이를 구출 해서 너무
멋졌다 나였으면 못 했을것같은데...
나는 이 책을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이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내가 본 책중에서 가장 재미
있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2반 이름(김정아)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4-3 김OO입니다. 저도 처음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줄넘기를 잘하는데 제만 못해서 뽀뽀한적이 있어서 책을 읽을때
더 공과대고 내용을 하나하나 볼때 저의 경험을 떠올리며 보니까 더 이해
가 잘돼더라고요 책에서 주인공이 뽀뽀기계에 갔을때 아무거나
버튼(?)을 눌러서 달사탕이 나오고 달사탕을 먹고 줄넘기를 잘하게
됐을때 문득 이런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우도 달사탕을 딱 줄넘기를 잘하게됐거 아
닐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고 고양이를
강요하고 할때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시
도 하면 언젠가는 돼지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책 하나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방법을 배웠죠 책을 읽고 느낀점은 한우가 너무
나쁜 하이쥬권 느껴졌지만 알고보니 너무 불쌍하네요. 형이랑 비교되면 많이
속상할것 같아요. 그리고 마복관(의대생)으로 끝내게됩니다. 저도 이제 책
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법을 배웠으니 저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할줄 아는 멋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3반 이름(김수아)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3반김수아 입니다!
전 작가님이 학교에 오신다고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줄넘기를 잘 하지 못해요. 세영이 처럼요 그래서
세영이에게 동정심이 들었어요. 은지처럼 줄넘기
를 잘 하고싶은데 자꾸 걸려서 화가나는 그런 마음 잘
알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달사탕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달에야는 것 같이 몸이 가
벼워지면 뛰놀 줄넘기도 잘 할것 같아요.
전 「가볍게폴짝 달사탕」을 읽으면서 달사탕의 효과를
알아냈어요. 줄넘기에 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는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저의 꿈 작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에만 그리던 작가님과의

만남! 기대감이 머리끝까지 온 라웁니다! 학교에와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3 반 이름(김가은)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지난 국어시간에 달사탕을 읽었다.

달사탕에는 세영, 찬우, 문지가 나오는데

나는 그중에서 세영이가 마음에 들었다.

세영이는 줄넘기를 원래는 못하는데 달사탕

덕분에 줄넘기를 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줄넘기를 30번 넘게 뛰숙 익었다

그리고, 세영이와 찬우가 학교에 가다가

나무에서 못 내려오는 새끼고양이를 보았다.

세영이가 달사탕을 먹고 고양이를 구해줬다!

마지막에는 세영, 문지, 찬우가 줄넘기를 계속

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뒤에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름(박서인)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책 작가와의 만남을 앞서 작가님의 책을 읽게 되었다. 내용은 줄넘기를 못하던 세영이가 우연히 달사탕을 먹고 몸이 가벼워져서 줄넘기를 잘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아책에서 세영이가 땅에 떨어진 더러운 달사탕까지 먹어가며 고양이를 구한게 인상깊었다 왜냐하면 세영이는 반대표 줄넘기보다 작은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 세영이의 착한 마음이 훌륭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없고 힘든 일에도 세영이 처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영이도 줄넘기를 잘하게 되서 좋았다. 이 책을 읽은 다른친구들도 자신없는 일도 잘 이겨내줬으면 좋겠다.

끝♡~//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4 반 이름(최은민)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같이 읽었다

줄넘기를 못 하는 서영이는 달사탕을 받으면
서먹 고나서 줄넘기를 잘 해줬다. 대회 끝나갈 때는
달사탕 없이나갔지-

나는 이 책에서 서영이가 달사탕 없이
줄넘기를 잘 하는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다. 왜냐하면 달사탕 없이도 노력하는 서영
이가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나도 달사탕을 먹어서 줄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다. 서영이가 저런 노력을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A 반 이름(손소현)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국어를 하다가 우연히 [가볍게 폴짝 달사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영이는 줄넘기를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줄넘기를 연습하다 달사탕 자판기를 발견해서 500원을 넣어 달사탕이 나왔습니다. 그걸 먹고 몸이 가벼워져 줄넘기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판기 버튼이 꼭 들어간게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들어간게 놀람기도 하면서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아 책을 읽고 생각하니 달사탕을 안 먹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줄넘기 잘할 수 있는 느낌이 बहुत하여 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고일

손소현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름(김서은)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우리반 친구들과 같이 읽었다.
이 책의 내용은 줄넘기를 못하던
세영이가 누연이 달사탕을 먹고
줄넘기를 잘하게 된다. 나는 이 책
에서 줄넘기를 위해 뿔은 달사탕으
로 고양이를 구해준 장면이 인상
깊다. 왜냐하면 줄넘기를 잘하는
것 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
겨 주니까 때문이다. 나도 세영이 처럼
신기한 사탕을 먹고 뭐든지 잘
해보면 좋겠다.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3반 이름(홍예나)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작가님 작가님이 이책을 만드셨을때
 어떤생각이셨는지정말궁금해요..

저도태극권을처음갔을때줄넘기를했었는데 저만보고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하고있었는데 너무잘해서 속마음으로 우와 진짜잘한다.이생
 각이었고 그다음날 또줄넘기를했는데 저도 이번엔 하려고 줄넘기를
 가지고했는데 친구들은 다들이중뛰기를 너무잘하고 저는 너무 줄이
 걸려서 너무속상한 경험이 1번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정말속상하고 울고싶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이지나서
 저도이중뛰기를 할때 잘하게되었어요.....

성공했을때 정말기쁘고 옛날생각을상상도하지않았어요
 그럼안녕히계세요..

북구도서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가와 책」
「가볍게 폴짝 달사탕」 박은경 작가와의 만남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4 반 이름(한승)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독서감상문을 써 봅시다.

나는 작가와의 만남의 앞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세영이는 낯설 때문에

졸음기 하는 것이 신경쓰이고 못하다가 달사탕

을 발견해 졸음기를 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책에서

인생귀요 장면은 운동회 때, 찬우의 오빠 현우오빠가 다룬아이

들에게는 착한데 찬우한테는 구박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현우오빠 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박하는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은 졸음기 대회

전에 세영이가 찬우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나도 중요한일 힘든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 줄수있는 멋진사람이 되고 싶다.

함께 글 쓴 부광초등학교 친구들

4학년

김가온	김미소	김서윤	김수아
김정아	나유정	노승아	박서인
박지헌	박태건	석채원	손소현
오유라	이서윤	이혜빈	정세은
최연희	최은민	한다솜	홍예나



변
가볍게
폴짝!

우리가
읽어낸 용기

